

간호사들 "신종코로나 위험국가 늘리고, 간호사 안전 보장해야"

송고시간 2020-02-06 11:51



김길원 기자

10개 단체 공동 성명..."감염병 위기경보도 '심각'으로 격상"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전국의 간호사들을 회원으로 둔 10개 학술단체가 6일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지역 확대와 감염관리 간호사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언론에 보낸 성명서에서 "감염 방역의 첫째 원칙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넓은 위험지역에서의 감염원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위험 상황이 지나 유행이 감소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및 감염발생지역(국가)을 위험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후 사후 수습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또 현재 '경계' 단계인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간호사 등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충분히 공급할 것과 장기적으로 감염 전문간호인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손위생 관리법, 마스크 사용법, 공중화장실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국민 대상 감염예방 지침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국간호과학회 조경숙 회장은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윤성원 회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는 5~6월이 신종코로나 최대 위험시기라고 했다"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위험자,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과하리만큼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코로나 첫 확진자 상태는?'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에 집중하는 가운데 30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치료 병실에서 한 간호사가 국내 첫 확진자인 35세 중국 여성을 실시간 모니터로 살피고 있다. 2020.1.30 tomatoyoon@yna.co.kr

bio@yna.co.kr

초이스경제

HOME > 산업 > 산업

간호 관련 학회, "신종코로나 1차 방어선 확대 시급"

윤 최미림 기자 | ⓒ 승인 2020.02.06 11:51

| "감염병 경보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야" 정부에 촉구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부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조경숙)를 비롯한 간호 관련 주요 학회장들이 감염의 1차 방어선 확대와 함께 정부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학회는 지난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감염 방역의 첫째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위험지역에서의 감염원의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및 감염발생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감염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숙 가천대학교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왼쪽), 윤성원 청운대학교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회장.

조경숙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은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며 "감염병 차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 당국과 의료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 회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오는 5, 6월이 신종 코로나 최대 위험시기라고 전망했다"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위험자,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과할만큼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학회장들은 간호사 등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등 충분한 물품 공급, 장기적으로는 감염 전문간호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손위생 관리법, 마스크 사용법, 공중 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등 국민 대상 감염예방 지침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장들은 이어 "정부에서 정치, 경제적인 손해를 고려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후 사후 수습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명서 발표에는 모 학회인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조경숙)를 비롯해,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회장 윤성원), 한국간호행정학회(회장 김종경), 한국기본간호학회(회장 신윤희), 한국기초간호학회(회장 안경주), 한국성인간호학회(회장 오의금),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오상은),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회장 정금희),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정명실),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 현혜진) 등 10개 간호학술 단체들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미림 기자

간호학계,코로나바이러스 방어선 확대 및 통제 강화 요구

간호과학회와 감염관리간호학회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기사입력시간 : 2020/02/05 [09:05:00]

윤병기 기자

【후생신보】 "감염 방역의 첫째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위험지역에서의 감염원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입니다. WHO에서 이미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감염관리 기본원칙에 반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간호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감염증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감염증이 확산된 상황에서 중국 후베이성 지역만 위험지역으로 규정한 소극적인 대처로는 감염관리 통제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간호과학회장(가천의대)과 윤성원 감염관리간호학회장(청운대)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 내의 감염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지역만을 위험지역으로 규정한 조치는 국가 간 이동 감염을 통한 1차 방어선 방어에 위배된다며 지금이라도 위험지역 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두 학회는 성명서에서 감염 방역의 첫째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위험지역의 감염원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며, 63개국이 중국인 입국 통제를 실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위험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감염관리 기본원칙에 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험상황이 지나 유행이 감소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및 감염발생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원의 격리와 차단이 중요하며, 방역대책 가운데 적극적인 예방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두 학회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간호인력과 감염 전문 간호인력 확충안 마련 △확진 환자 증상이나 감염경로 정확하게 공유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두 학회는 “우리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환자의 곁을 지킬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병 차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성원 감염관리간호학회장은 “미 존스홉킨스는 2월 4일자로 5~6월에 환자수가 최대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역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느슨한 통제로는 언제 위험지역으로 분류될지 모르는 만큼 서둘러 방어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중국 수준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 손위생

- 손씻기: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손소독: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알코올 함유(60-90%알코올) 제품으로 20초 이상 손 마찰
- 손위생 기술 6가지 모두 준수하기(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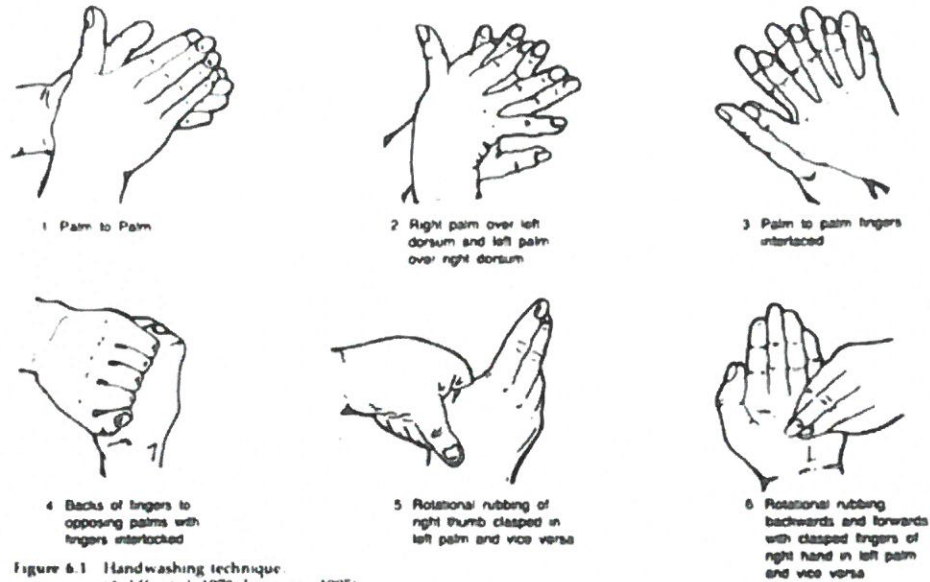


Figure 6.1 Handwashing technique.
(Ayliffe et al. 1978, Lawtence 1985)

간호과학회와 감염관리간호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지침'을 공개했다.

감염예방 지침에는 ▲손씻기 ▲마스크 사용 ▲기침·호흡기 에티켓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고 오염된 눈, 코, 입 깨끗이 유지하기 ▲일회용 장갑 사용 ▲식기류 개별 사용 ▲공중 화장실 사용시 주의 ▲붐비는 장소나 모임 병원 문병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과학회 조경숙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고 심각한 폐석회화가 가능한 감염균"이라며 "비말로 전파되며 설사 등 분변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잠복기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염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지침 (일상생활에서의 준수사항)

4. 손씻기 및 손 건조 방법과 올바른 코, 눈의 관리에 주의하기

- 손으로 입, 코, 눈 직접 접촉하지 않기
- 손을 씻어야 할 경우와 방법을 꼭 지켜 씻고, 구강 소독하기

5. 일회용 마스크 사용

- 호흡기질환 접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회용 마스크 사용하기

6. 식기류 개별 사용

- 다른 사람과 먹거나 음식이나 식기류를 함께 공유하지 않기
- 음식, 반찬 등 미리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기
- 한 개의 용기수를 다른 용기를 사용하면 그 용기라도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기

7. 공중 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 변기의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 변기표면을 휴지로 닦고 사용하기
- 화장화장실의 비데는 용대로 사용하면 안됨
- 화장실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손위생 철저하게 수행하기

8. 불필요한 손수건 모양 병원 물병 사용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한 장소에 가지 않음
- 병문객으로 병원문병 자제

9. 기타 개인 위생

- 기타 기본적인 개인위생 철저하게 준수하기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영화관, 박물관, 터미널, 병원, 각종 모임 장소)에 가지 않기-부득이 가는 경우에는 개인 보호구(마스크 착용), 사람과 접촉할 수 있음 준수하기
- 가능하면 타인과 악수하지 않고 흔들어 인사하기
- 외출 후 집에 오면 손위생, 서수하기, 목욕, 입 가글하기 등

한국간호관리간호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조 회장은 “눈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입, 코, 눈 점막 접촉을 하지 않아 스스로 감염원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 “다른 사람과 먹는 음식이나 식기류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음식, 반찬 등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등 감염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70년 창설된 한국간호과학회는 명실 상부한 한국 간호계의 대표 학술단체로, 현재 4,6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의 구성은 133개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를 위시한 연구원 및 간호계의 지도자로 되어있다.

학회 설립의 기본목표는 간호학 연구와 국내,외적 학술활동을 통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신기술 개발과 주요정책수립에 기여하며 타 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간호학의 연구 활동 지원,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본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학회지 발간 등 국내외 적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있다.

간호과학회는 오는 10월 23일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롯데잠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청년의사

HOME 뉴스 기관·단체

간호학계도 '신종 코로나' 막기 총력... "중국 전역 '위험지역' 선포해야"

간호과학회·감염관리간호학회 "위험지역 축소는 감염관리 기본 원칙에 위배"

김은영 기자 승인 2020.02.05 06:00

간호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감염증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감염증이 확산된 상황에서 중국 후베이성 지역만 위험지역으로 규정한 소극적인 대처로는 감염관리 통제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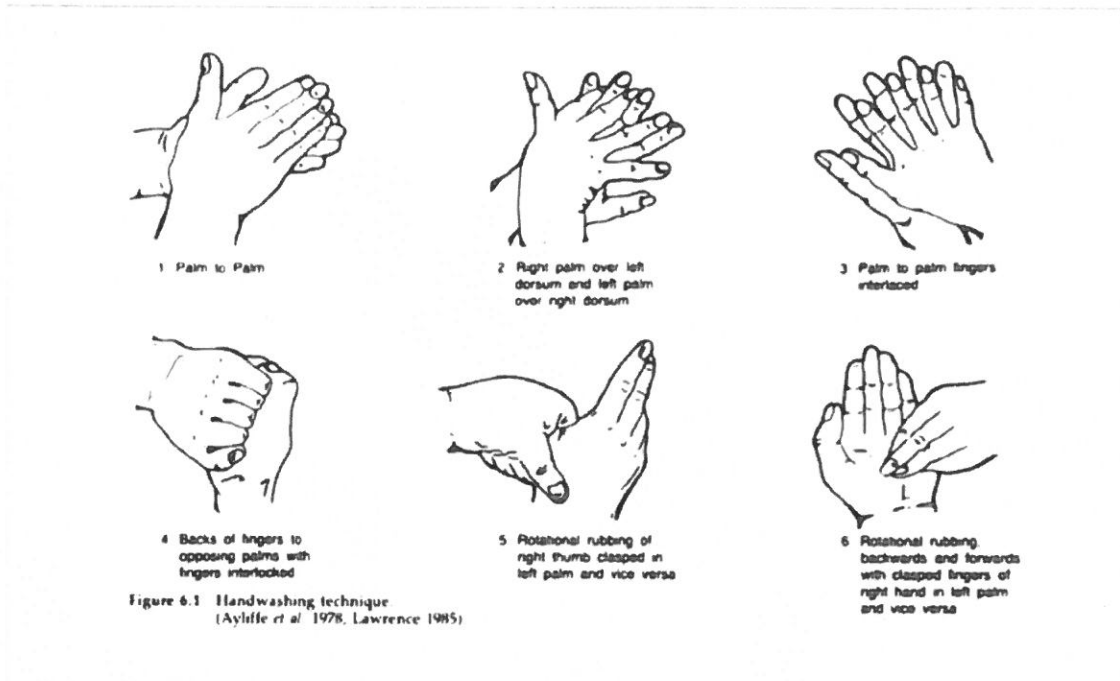
한국간호과학회와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는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1차 방어선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염 방역의 첫 번째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넓은 위험지역에서의 감염원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라며 "WHO에서 중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험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감염관리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경계 단계로 있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면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원 격리와 차단이 중요하다. 전 방위적인 방역대책 수립에 적극적인 예방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전문 간호 인력 양성과 확충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유행에 맞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간호사들은 감염병과 사투를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충분한 간호 인력과 감염전문 간호 인력 확충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지침: 손씻기)

한편, 간호과학회와 감염관리간호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지침'을 공개했다.

감염예방 지침에는 ▲손씻기 ▲마스크 사용 ▲기침·호흡기 에티켓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고 오염된 눈, 코, 입 깨끗이 유지하기 ▲일회용 장갑 사용 ▲식기류 개별 사용 ▲공중 화장실 사용시 주의 ▲붐비는 장소나 모임 병원 문병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과학회 조경숙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고 심각한 폐석회화가 가능한 감염균"이라며 "비말로 전파되며 설사 등 분변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잠복기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염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눈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입, 코, 눈 점막 접촉을 하지 않아 스스로 감염원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 "다른 사람과 먹는 음식이나 식기류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음식, 반찬 등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등 감염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감 경고 '감염관리간호사들'

"후베이성 외 입국 제한 확대하고 경보단계 '심각' 격상-감염 전문간호인력 확충"

뉴스일자: 2020년02월05일 05시49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민국 감염 관리 최일선에서 일하고 연구해 온 감염관리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 간 이동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도 입국을 제한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손위생 관리법, 마스크 사용법, 공중 화장실 사용시 주의사항 등 국민 대상 감염예방 지침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호사 등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마스크 등 충분한 물품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염 전문간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회장 윤성원 [사진 左])와 대표적 간호학술단체인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조경숙[사진 右])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두 학회는 "4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국한된 위험지역 선포는 역학적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WHO와 같은 수준으로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한 1차 방어선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WHO는 중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시에 이어 저장성의 원저우시도 봉쇄하고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윤성원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장은 "감염 방역 첫번째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위험지역에서의 감염원 입국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위험상황을 지나 유행이 감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및 감염발생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정치, 경제적인 손해를 고려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후 사후 수습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을 보다 염두에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학회는 현재 경계 단계에 있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일찍이 대한의사협회도 심각 수준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올려야 함을 주장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보는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 레벨에 준하는 대책을 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염관리전문간호사들은 “정부가 보다 확실히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염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 대상 감염예방 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성원 회장은 “물로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소독 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사용할 것,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고 오염된 눈·코·입을 깨끗이 유지해 스스로 감염원 전파 안하기, 외출 후 목·코·입 가글하기 등 일상생활 속 지침들이 감염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변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식기류를 개별 사용하고 음식, 반찬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속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원 회장은 “의료진들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마스크를 교체해야 하는데 제품 품귀 현상으로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감염이 현재보다 확대될 경우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물품 부족 상황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오늘 신종 코로나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5, 6월이 최대 위험 시기라고 밝혔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위험자,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과하리만큼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감염관리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전방에서 생명을 내놓고 일할 준비가 돼있지만 무방비 상태로 자기 병원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은 역학관리수준이 높은 안전지역이지만 언제 제2의 중국이 될지 모른다. 중국처럼 감염이 악화돼 이동제한을 걸고 지역이 고립되면 상황은 견잡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dailymedi.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박성은기자 sage@dailymedi.com

창닫기

“이러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2.05 09:00

| 간호과학회와 감염관리간호학회 정부의 방어선 확대 및 통제 강화 촉구

“자칫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1차 방어선을 확대해 감염 유행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간호과학회와 한국감염관리간호학회가 일선에서 환자 간호에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 보장 및 국민보호를 위해 정부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 실행을 촉구했다.

조경숙 간호과학회장과 윤성원 감염관리간호학회장은 2월 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 내의 감염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지역 만을 위험지역으로 규정한 조치는 국가 간 이동 감염을 통한 1차 방어선 방어에 위배된다며 지금이라도 위험지역 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학회는 성명서에서 감염 방역의 첫째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넓은 위험지역의 감염원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며, 63개국인 중국인 입국 통제를 실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위험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감염관리 기본원칙에 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험상황이 지나 유행이 감소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중국 및 감염발생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계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원의 격리와 차단이 중요하며, 방역대책 가운데 적극적인 예방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

이와 함께 두 학회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므로 충분한 간호인력과 감염 전문 간호인력 확충안 마련 △확진 환자 증상이나 감염경로 정확하게 공유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두 학회는 “우리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환자의 곁을 지킬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감염병 차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성원 감염관리간호학회장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2월 2일 5~6월에 환자수가 최대치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역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느슨한 통제로는 언제 위험지역으로 분류될지 모르는 만큼 서둘러 방어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중국 수준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대부분 대학이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을 늦추기 위해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며 “한국 대학생들의 교육 받을 기회 상실 등을 감안할 때 개학만 늦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전 중국 유학생에 대해 입국 후 학교나 기숙사로 들어오기 전에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바로 개학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0년 창설된 한국간호과학회는 명실 상부한 한국 간호계의 대표 학술단체로, 산하에 간호영역별로 8개의 회원학회를 두고 SCI에 등재된 2종의 국제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오는 10월 23일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롯데잠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관식 기자



홈 > 뉴스 > 단체

“위험지역 확대·국내 유입 최대한 통제” 촉구

한국간호과학회·감염관리간호학회 성명서, 적극적 예방이 비용 효과적

2020년 02월 04일 (화) 23:52:03

손종관 ✉ sjk1367@hanmail.net

간호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1차 방어선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실시하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국한된 위험지역 선포는 역학적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이기에, 위험지역을 확대하고 국내 유입을 최대한 통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국가고시 과목의 8개 학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조경숙)와 한국 감염관리간호학회(회장 윤성원)은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학회는 “감염 방역의 첫 원칙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넓은 위험지역에서 감염원의 입국을 최대한 차단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63개국에서 중국인 입국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험상황이 지나 유행이 감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이라도 중국 및 감염 발생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계’ 단계에 있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도 촉구하고, “유입되는 감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원의 격리와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적극적 예방이 전 방위적인 방역대책 수립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학계는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지침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손씻기, 손소독, 타인과 접촉 또는 환경표면과 접촉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강조했다. 마스크 사용은 일반 천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매일 세탁해 사용하고 젖으면 다른 것으로 교환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게 되면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침·호흡기 에티켓은 휴지(없으면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할 것과 얼굴을 만지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염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일회용 장갑 사용하기, 식기류 개별사용, 공중화장실 사용시 △뚜껑닫고 물내리기 △변기표면 휴지로 닦고 사용하기 △공중화장실 비데 사용하지 않기 △화장실 사용뒤 손위생 철저, 붐비는 장소나 모임 가지 않기, 병원 문병 자제, 외출후 목·코·입 씻기, 타인과 악수보다는 목례나 눈인사로 하기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학계는 “이번 성명은 국민건강과 보건학적 측면서 발표한 것으로 이를 정치적 프레임에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